

군공항이전법, 광주는 '용자'·대구는 '지원'



대구국제공항(왼쪽)과 광주공항의 전경. 같은 날 제정된 대구·경북신공항이전특별법은 국가 보조·이주자 지원·에타 특례 등이 포함된 반면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에는 이 같은 조항이 아예 없어 명백한 지역 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같은 날 제정된 대구·경북신공항이전특별법은 국가 보조·이주자 지원·에타 특례 등이 포함된 반면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에는 이 같은 조항이 아예 없어 명백한 지역 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2023년 8월 시행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 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이하 광주군공항이전법)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이하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에 있는 국가 책임 및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보조금 인상 지원 등이 없는 '속빈 강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3면〉

부실한 광주군공항이전법으로 인해 오롯이 광주가 군공항 기존 부지 개발을 통해 새 군공항 조성, 이전 부지 보상 등의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반면 대구·경북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해 필요한 재원이 반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왔다. 특히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은 정부부처가 이전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인상해 지원할 수 있으며, 군공항 이전 사업 시행으로 인해 생활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에 대한 생계 지원, 이주 정착 또는 생활 안정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군공항이전법에는 이 같은 조항이 아예 없어 명백한 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군공항법 '국가 책임' 빠져 이주자 지원비용 등 광주시가 감당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은 국고 보조금으로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규정

지주부진한 광주군공항 이전 사업의 이면에는 군공항 이전 책임을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만 두고 정부 책임을 명확하게 적시하지 못한 광주군공항 이전법에도 있다는 의미다. 최소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에 준하는 정도의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군공항이전법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은 모두 지난 2023년 4월 25일 제정되어 같은 해 8월 26일 시행되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은 모두 제6장 제41조로, 광주군공항이전법은 제4장 제22조로 구성되어 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은 우선 제3조에 기본방향 등을 명시했으며,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분명히 명시했다. 무엇보다 광주군공항이전법과 다른 점은 제7조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등'이다. 이 조항에 따라 정부

부처는 이전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인상해 지원할 수 있으며, 군 공항 이전 사업 시행으로 인해 생활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에 대한 생계 지원, 이주 정착 또는 생활 안정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특히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시행령에는 이주자에 대한 직업 훈련 및 취업 알선부터 이주정착특별지원금(세대당 2000만원), 생활안정특별지원금(세대 구성원 1명당 250만원) 등을 명시해냈다.

기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기부대양어 방식에 따라 기존 부지의 개발 이익으로, 군공항 이전 및 지원 사업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해 지원할 수 있게 한 조항은 두 법 모두 포함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광주군공항이전법은 제4장 '정부의 재정 지원 등' 제14조 '정부의 재정 지원'에서 "국가는 이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용자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았다는 점이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은 제4장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지원' 제20조 '정부의 재정 지원'에서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다"고 해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넣어둔 것이다.

또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은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수익성 보장을 위한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부여 등의 지원 방안을 명시하고 있으나 광주군공항이전법은 이를 담지 못했다. 기존 부지를 개발하는데 있어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마저 미약한 것이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은 공항 이전 과정에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할 수 있는 특례, 종전 부지 개발 사업 시행 지역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는 특례까지 집어넣었지만, 광주군공항이전법에는 이들 특례가 없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민·군 공항 이전 범정부협의체·민주당 특위 요청

강기정 시장 "전남도 '함흥차사' 등 발언 미안한 일" 공식 사과
김영록 지사 "광주시장 사과 수용...군 공항 3자 회동 재차 강조"

강기정 광주시장은 24일 민·군공항 통합 무안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민주당이 적극 나서 줄 것을 재차 요청하고 나섰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이제는 '알 속의 당사자'인 광주·전남·무안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다. 민·군 통합공항 이전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알 바깥'에 있는 중앙정부, 민주당이 '줄탁동시'를 해주

셔야 한다"면서 중앙정부의 '범정부협의체' 운영 재개와 민주당의 '특위' 구성 등을 제안했다.

강 시장은 또 지난 22일 광주시 국감에 이어 다시 한번 민·군 공항 통합 이전과 관련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강 시장은 이날 "함흥차사, 양심불량" 등의 발언으로 전남도의 노력이 폄하되고, 무안군민의 마음에 상처가 생긴 것은 매우 미안한 일"이라고 공식 사과했다.

앞서 대구 출신 국민의힘 이달희(비례) 의원은 지난 22일 광주시 국감에서 "대구·경북(통합 신공항)에 비해보면 강기정 시장의 '플랜B'는 무안군민에게 협박으로 느껴진다. '함흥차사', '양심불량이다', '무안군수는 막힌 행정을 하고 있다' 등 사이사 발언이 때로는 행정의 충들을 가져온다"고 강 시장의 발언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전남지사도 이날 교착상태에 빠진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강기정 광주시장의 조건부 사과를 수용하고, 군공항 3자 회동 재개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출신 기자 간담회에서 "민·군공항을 통합 이전한다면 뭐든지 하겠다"는 강기정 광주시장의 국경감사 발언에 대해 "진정성있게 여겨진다"고 받아들였다.

김 지사는 "여러 말들을 반추하다보면 (불필요한) 감정이 쌓일 수 있다"며 "공항 이전 문제는 광주와 전남이 상생협력 할 큰 사안인 만큼 진정한 소통을 통해 잘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은 기자 dok2000@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포근한 '가을 날씨'

주말엔 흐리고 5mm 비 내려

완연한 가을 주말을 맞은 광주·전남에 26일 오후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이 돼 주말 나들이 시 우산을 챙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5일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26일 오후부터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고 5mm 내외의 비가 내리겠다"고 24일 예보했다.

주말사이 광주·전남 기온은 포근한 가을 날씨를 보여준다. 기상청은 광주·전남에 동풍이 유입되면서 24일보다 기온이 2-7도 가량 오를 것으로 분석했다.

25일 광주·전남 아침 최저기온은 6-16도·낮 최고기온은 22-24도를 보이고, 26일에는 아침 최저기온은 11-18도·낮 최고기온은 21-24도에 분포하겠

다. 25일까지는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토요일인 26일부터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부분의 광주·전남지역이 대체로 흐리겠다.

전남 해안 지역에는 5mm 내외의 비가 내리겠다. 비는 27일 오전 광주·전남 내륙까지 확대돼 28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찬 공기의 남하 정도에 따라 29일까지 비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29일 이후에는 다시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광주·전남은 평년기온(최저 7-14도, 최고 19-23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0도 내외로 크겠다"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한강 '푸른 산' 관련 알려드립니다

광주일보사는 지난 1994년 '예향' 7월호에 수록된 한강 작가의 단편소설 '푸른 산'을 3회에 걸쳐 게재하기로 했지만 사정상 중단합니다.

당초 자매지 월간 '예향' 창간 40주년을 맞아 아카이브를 하는 중에 한강 작가의 초기 작품을 발굴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작가의 소설을 읽고 싶지만 책을 구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 독자 서비스 차원에서 지면 공개를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작가가 지면에 게재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출판사를 통해 전해와, 안타깝지만 1회를 끝으로 실을 수 없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사는 앞으로도 한강 작가의 창작 활동을 응원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한국전력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미래산업의 성장은 안정적인 전기공급이 기본이기에 한국전력은 전력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더 밝은 내일을 위해 한국전력은 전력질주 하겠습니다.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일.

글로벌 에너지 리더 KEPCO
국가 미래 성장 기여 /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창출

ENERGY SENSE CAMPAIGN
01.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하기 · 1.08 kWh/일
02. 사용하지 않는 조명 소등하기 · 0.36 kWh/일
03. 세탁기 사용 시 세탁물은 모아서 사용하기 · 0.09 kWh/일